

소록도의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알리기

간호협회 - 고흥군 - (사)마리안마가렛 업무협약

참된 간호정신 알리는 데 앞장
노벨평화상 후보 추진 적극 참여
마리안느-마가렛 봉사학교 활용

소록도에서 헌신한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참된 정신을 널리 알리고, 노벨평화상 추진을 위한 국민적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대한간호협회가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마리안느-마가렛 봉사학교'를 알리고 활성화하는 데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전남 고흥군(군수 박병중) 및 사단법인 마리안마가렛(이사장 김연준)과 소록도의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4월 5일 간호협회 회의실에서 체결했다.

박병중 고흥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어린 시절 소록도에 자주 갔었고,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를 뵈었던 특별한 추억을 갖고 있다"면서 "소록도에서 봉사하면서 평생 행복했다는 두 분의 말씀이 큰 울림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분의 삶과 간호정신이 남과 더불어 살 때 행복하다는 가치를 일깨워주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맑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힘이 되어 줄 것으로 믿는다"면서 "오늘 협약식 자리를 마련해준 대한간호협회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고흥군은 두 간호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조례를 2015년 제정했으며, 이들에게 매달 1004달러(약 110만원)의 연금을 10년간 지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연준 마리안마가렛 이사장은 "일생을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소록도에서 헌신한 두 간호사의 노후를 우리들이 맡아서 돌보지 않고 오스트리아로 떠돌아가게 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리안느와 마가렛 기념사업은 사람에게서 희망을 찾는 사업이며, 간호사가 얼마나 존엄하고 위대한 직업인가를 잘 보여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대한간호협회의 협약식이 두 분을 기념하는 사업들과 노벨평화상을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될



대한간호협회는 전남 고흥군 및 (사)마리안마가렛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박병중 고흥군수,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김연준 마리안마가렛 이사장.

것"이라고 밝혔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우리 간호사들이 돌봐야 할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분을 고흥군과 사단법인 마리안마가렛에서 대신 챙겨주고 계시니 송구스럽고 또한 감사하다"면서 "노벨평화상 추진에 간호협회가 앞장서 뛰면서 정성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마리안느-마가렛 봉사학교에서 간호사와 간호학생들이 배우고 힐링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간호협회 광월희 제1부회장, 손혜숙 재무위원장, 조정숙 홍보위원장과 김승구 고흥분청문화박물관장, 고흥군 마리안느마가렛사업팀과 (사)마리안마가렛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박소향 재독한인간호협회장이 함

께 자리했다.

협약식에 앞서 참석자들은 '마리안느와 마가렛' 영상물을 시청했다.

한편 '마리안느-마가렛 봉사학교'는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2336번지 일대에 세워지며, 오는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흥군과 (사)마리안마가렛이 협약을 맺고 공동운영하며, 세계적인 자원봉사의 메카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범국민 추천위원회'는 2017년 11월 23일 발족했으며, 후보 추천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위원장은 김홍식 전 국무총리가 맡고 있다.

정규숙·최수정 기자

간협, 상임위원회 구성

대한간호협회는 8개 상임위원회 위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제37대 신경림 회장과 새 집행부가 출범한 후 첫 번째 정기이사회를 3월 27일 협회 4층 회의실에서 열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8개 상임위원회 위원을 구성했다.

이에 앞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2월 22일 대한간호협회 정기대의원 총회가 끝난 후 열린 첫 임시이사회에서 정한 바 있다. 간호협회 정관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중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맡고, 그 외 위원회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상임위원회별 위원장은 다음과 같다. △운영위원장=신경림 회장 △정책위원장=광월희 제1부회장 △법제위원장=김영경 제2부회장 △교육위원장=탁영란 이사 △재무위원장=손혜숙 이사 △홍보위원장=조정숙 이사 △복지위원장=유재선 이사.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은 대학 및 임상 활동분야, 근무지역 등을 고루 안배해 선정했으며, 외부전문가를 포함시켰다. **위원 명단 (표) 참조**

한편 간호협회 '당연직 부회장'으로 박영우 병원간호사회장이 확정됐다. 정관에 따르면 당연직 부회장은 간호협회 회원 수의 25% 이상이 회원으로 등록된 지부 및 산하단체의 장으로 하도록 돼 있다.

간호협회 중앙회 '당연직 이사'의 경우 전국을 2개 권역으로 나눠 시도간호사회장 중에서 각 권역을 대표하는 사람을 1명씩 선출하게 된다.

정규숙 기자 kschung@

2018~2019년 대한간호협회 상임위원회 위원

대한간호협회는 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확정했다.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은 대학 및 임상 활동분야, 근무지역 등을 고루 안배해 선정했으며, 외부전문가를 포함시켰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위원 = 광월희(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 김영경(대한간호협회 제2부회장) 박영우(대한간호협회 당연직 부회장) 손혜숙(대한간호협회 재무위원장) 대한간호협회 제1권역 당연직 이사 1명(선출예정) 대한간호협회 제2권역 당연직 이사 1명(선출예정)

정책위원회

△위원장 = 광월희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
△위원 = 김명희(강릉영동대 간호학부 교수) 김연희(서울아산병원 간호부원장) 박소영(신한대 간호대학 교수) 유승연(한남대 간호학과장) 이태화(연세대 간호대학장) 임현숙(삼육서울병원 간호부장) 한영희(시화병원 간호부원장·남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이윤정(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법제위원회

△위원장 =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제2부회장
△위원 = 박남희(인제대 간호학과 교수) 서연옥(순천향대 간호학과 교수) 오경환(세브란스병원 간호단무위원장) 이옥경(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간호부장) 장성숙(고려대 간호대학 교수) 정양숙(대구과학대 간호대학 교수) 법률전문가

교육위원회

△위원장 =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이사
△위원 = 강은희(대한간호협회 이사·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 박경희(강남세브란스병원 파트장) 송라운(대한간호협회 이사·충남대 간호대학 교수) 송준아(고려대 간호대학 교수) 신용순(한양대 간호학부 교수) 차정화(서울성예병원 간호부장) 한복희(경희의료원 팀장) 평생교육전문가

재무위원회

△위원장 = 손혜숙 대한간호협회 이사
△위원 = 김옥숙(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영성간호부장) 김지일(김포우리병원 행정원장) 박미라(한양대병원 간호부장) 박미영(대한간호협회 이사·건국대병원 사회사업팀장) 박성순(전 서라벌대 간호학과 교수) 이경주(가톨릭대 간호대학 교수) 이숙경(당양대 간호학과 교수) 회계·세무전문가

출판위원회

△위원장 = 박경숙 대한간호협회 이사
△위원 = 김기숙(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서기순(대전과학기술대 간호학부 교수) 서은영(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엄혜아(가톨릭대 간호대학 교수) 이명경(경북대 간호대학 교수) 임현숙(호원대 간호학과 교수) 조진경(중앙대병원 간호부장) 출판기획전문가

홍보위원회

△위원장 = 조정숙 대한간호협회 이사
△위원 = 남정자(마산대 간호학과 교수) 윤로사(강동경희대병원 간호본부장) 전명봉(동해병원 간호부장) 조성현(구로성심병원 간호부장) 최귀윤(울산과학대 간호학과 교수) 최은희(한국성서대 간호학과 교수) 현성경(이대목동병원 간호부원장) 홍보전문가

복지위원회

△위원장 = 유재선 대한간호협회 이사
△위원 = 김옥숙(중앙보훈병원 간호본부장) 김연애(서울성심병원 간호부장) 배소현(삼육보건대 간호학과 교수) 성경순(한양대병원 간호국장) 양복순(예수대 간호학부 교수) 이미숙(베스티안병원 간호이사) 장보경(명지병원 간호부장) 노무자문가



마리안느(왼쪽)와 마가렛 간호사

소록도 한센인 돌본 푸른 눈의 천사

"진짜 특별한 것 하나도 안 한다고 생각했어요. 환자들 돕고, 환자들 좋아하고, 진짜 소록도에서 좋은 시간 보냈고 행복했어요."

푸른 눈의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 스테이퍼(84세, 한국이름 고지선)와 마가렛 피사렉(83세, 백수선)은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간호학교를 졸업했다. 구호단체 다미안재단을 통해 마리안느는 1962년, 마가렛은 1966년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 간호사로 파견됐다.

공식적인 파견기간이 끝난 뒤에도 소록도에 남아 40여년간 한센인들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지며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삶을 살았다. 월급을 받지 않는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일했다.

20대에 소록도를 찾았던 두 간호사는 70대 노인이 되어 소록도를 떠났다. 제대로 일할 수 없어 오히려 부담을 느껴봐 조용히 떠나는 편지 한 통을 남긴 채 2005년 11월 22일 오스트리아로 돌아갔다. 마리안느는 대장암으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며 완치됐다. 마가렛은 치매를 앓고 있는데, 소록도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아주 행복하고 좋았다고 말한다고 한다.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간호사, 엄마, 소록도

할매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었지만 그 모든 부름은 사랑 그 자체였다. 국민훈장, 국민포장, 민해대상 실천부문 등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명예국민증을 수여받았으며, 명예 전남도민으로 선정됐다.

국립소록도병원원은 2006년 두 사람이 생활했던 공간을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집'으로 명명했다. 이곳은 2016년 등록문화재 제660호로 지정됐다.

휴먼 다큐멘터리 영화 '마리안느와 마가렛'이 제작돼 2017년 4월 20일 개봉했다. 소록도 100주년을 맞아 전남 고흥군이 지원하고, (사)마리안마가렛과 기린제작사가 제작했다.

PLAN YOUR STORY™

Prudential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삶의 완성을 위해

타인의 아픔을 간호해야 한다는 직업적 사명감으로 늘 자신보다 다른 이를 먼저 보살피는 간호사이지만, 그 삶 또한 무엇보다 소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푸르덴셜생명의 라이프플래너®는 간호사분들을 먼저 생각하는 특별한 솔루션을 준비합니다.

아름다운 인생 준비, 푸르덴셜생명의 라이프플래너®가 함께 하겠습니다.

준법감사인확인필-SM-1803003-3